

성공하는 사람들의 패션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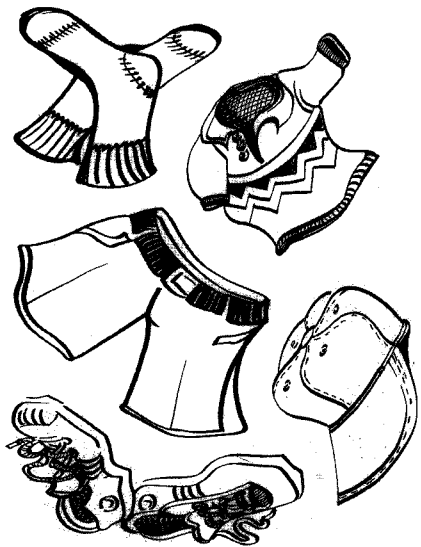


김 경 호 박사
KIMC 김경호 이미지메이킹센터 대표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옷차림은 그 사람의 신분과 역할을 잘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어떤 배우에게 왕의 옷을 입혀 놓으면 그는 여지없이 왕같이 보이고, 지저분한 옷으로 분장하면 바로 거지처럼 변한다. 옷을 입음으로써 신분과 역할이 구분되는 것이다.

‘음식은 먹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야 하고 옷은 보는 사람을 위해서 입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옷이 날개라지만 자신의 신분과 역할에 맞게 입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거나, 타인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 그래서 패션학에서는 때 (Time), 장소 (Place), 분위기 (Occasion)에 맞게 연출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옷차림과 같은 비언어적 메시지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각 개인의 사회, 문화적 경험에 의존하므로 지각적 편견을 갖고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입은 사람’은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 지위, 지식, 성격, 가치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지만, 보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인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입은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이 파악될 수도 있다.



보는 사람의 모호성(ambiguity)으로 인해 오해 발생 부적합 이미지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답다”고 보여 지도록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입은 사람’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하며, 좋은 인상을 형성시킬 수 있다.



옷차림에서 슈트는 대개 획일적이고 딱딱한 인상을 주기 쉽다. 하지만 의외로 입을 방법에 따라 이미지가 천차만별 다르게,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살릴 수도 있다. 슈트 차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에 잘 맞는 옷을 골라 단정하게 입는 것이다. 우선 슈트의 올바른 착용은 입을 때 보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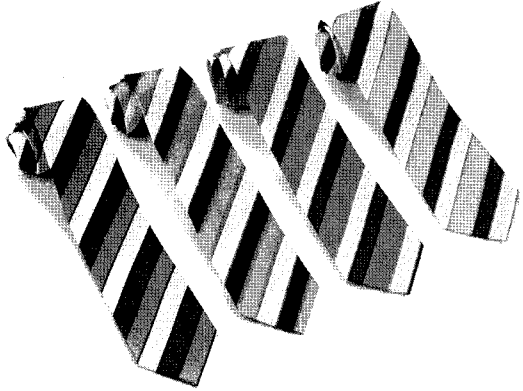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할 것은 어깨부분이다. 슈트의 착용감을 위해 어깨에 가로 세로 주름이 생기지 않는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김이 많은 옷은 단정치 못한 인상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바지의 폭은 손가락 끝에 약간 잡히는 정도가 좋다. 바지는 너무 클 경우 허리둘레에 주름이 생겨 흉하므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여유만 있으면 적당하다. 바지 길이는 너무 경중해 보이지 않도록 구두등을 살짝 덮는 정도가 좋다. 슈트 착용에서 셔츠와 타이는 자신만의 개성과 색깔을 과감히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남성 품목이다. 기본적으로 셔츠의 색보다 어두운 톤의 타이를 매는 것이 안정감 있어 보이며 셔츠와 타이를 톤 온 톤으로 매는 것도 인기 연출법이다. 셔츠는 소매가 재킷 밖으로 1.5cm 정도 나오도록 입고 셔츠의 목 뒷부분도 재킷 깃 위로 조금 올라오도록 입어야 보기에 좋다. 정장차림에는 절대 흰양말을 신어서는 안 된다.

* 남성 정장의 핵심포인트 - 넥타이

남성의 정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V존이다. 그 사람의 얼굴과 옷이 만나는 삼각지점인데 바로 넥타이가 보이는 곳을 말한다. 넥타이는 아득한 옛날부터 땀을 빨아들이고 햇빛을 가리기 위해 천 조각을 목에 두르고 다녔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것이 넥타이 형태로 변한 시기는 프랑스 루이 14세 때이다. 크로바트 용병이 화려한 천을 장식용 목도리로 사용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넥타이라고 하지 않고 용병부대의 이름을 따 크로바트라고 불렀다. 프랑스 귀족들은 크로바트 용병의 맵시에



되어 너도나도 크로바트를 매기 시작했다. 프랑스 혁명으로 루이 14세가 축출되면서 크로바트도 자취를 감추었다가 이후 19세기 초 넥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다. 당시에 넥타이의 스타일은 매는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 따라 달랐다. 요즘도 어느 유명 브랜드의 넥타이는 뭔가 달라 보이기 위해서인지 넥타이라고 부르지 않고 크로바트라고 표기해놓은 경우도 있다.



남성의 정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브이 존(V-zone)이다. 다른 곳은 다 좋은데 넥

타이를 잘못 매면 어색해지기가 쉽다. 정장의 핵심이랄 수 있는 넥타이의 위치는 시선을 끄는 중요한 자리이다. 넥타이는 남성들에게 필수적인 패션소품의 하나이다. 그런 만큼 전체 의상과 잘 조화되는 넥타이를 골라야 완벽한 멋을 추구할 수 있다.

넥타이는 양복과 흔히 와이셔츠라고 불리고 있는 드레스 셔츠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기본은 언밸런스다. 체크무늬가 요란한 양복에는 잔잔한 무늬나 단색 계열의 넥타이가 잘 어울린다. 반대로 얌전한 스타일이나 파스텔 톤 색상에는 광택 소재의 약간 튀는 넥타이를 고르는 것이 정석이다. 또한 드레스 셔츠의 색상이나 디자인과도 잘 어울려야 한다. 블루 색상에는 감색 계열의 넥타이가, 흰 셔츠에는 황금색 또는 붉은 색상의 실크 넥타이가 기본이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넥타이의 길이이다. 바른 자세로 서있을 때 넥타이 끝이 벨트 아래에 오도록 매면 무난하다. 어떤 넥타이를 어떻게 매느냐에 따라서 완고해 보이기도 하고 세련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비치지기도 한다. 넥타이로 자신의 감각을 잘 드러내는 센스가 필요하다.

*** 정장의 매치 포인트(Match point)**

매치 포인트를 무시해도 이상해지고 만다. 짙은 색 양복에 흰 양말도 문제지만, 무슨 방패처럼 커다란 벨트를 차고다니는 것도 이상하다. 풍채가 좋은 남자가 양쪽 뒤통가 터진 상의를 입으면 더 넓어 보이고, 훌쩍한 남자가 가운데 터진 상의를 입으면 더 말라 보인다.

구두는 검정 색과 밤색을 선호하는데, 밤색 구두에 어울리는 정장은 밤색이나 백색 바지가 어울린다. 백색 정장을 하는 일은 그리 흔치 않고, 밤색 자체는 고상한 색이지만 키가 작고 몸집이 왜소한 사람이 입으면 촌스럽게 보이기 쉽다. 그러므로 검정색 구두가 대체로 무난하다.

양말은 바지 색과 동일해야 하는데, 바지 색깔은 다양해도 양말 색깔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는 바지 색과 구두 색의 중간색을 선택하면 좋고, 그것도 무리가 있을 때는 구두 색과 동일하게 신으면 된다.

벨트는 구두 색과 동일하면 좋다. 요즘의 벨트는 양면에 색깔이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데 다양한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와 어울리는 색깔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청색 양복은 품위 있는 색상이지만 강마르고 얼굴이 흰 사람이 입으면 차갑고 사납게 느껴지기 쉽다. 거기에다 금테 안경까지 쓰게 되면 분위기가 더욱 스산해진다. 또한, 더욱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지기가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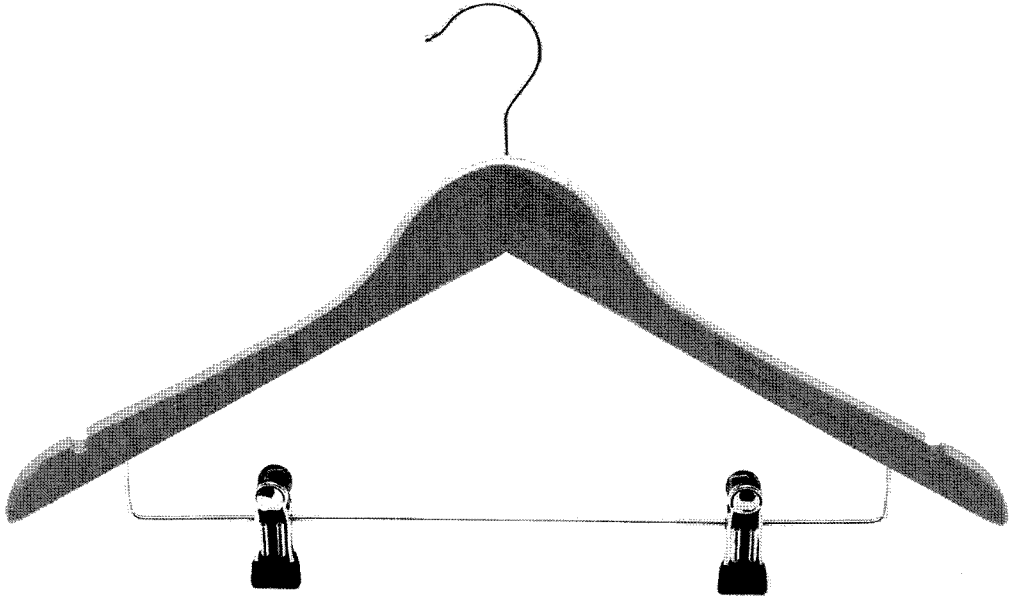


한복에는 악서사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목걸이와 팔지는 금물이고 짙은 색의 메니큐어와 귀걸이는 하지 않는다. 한복색상에 어울리지 않는 번쩍거리는 반지와 하이힐도 년센스다.

* 맵시의 출발 - 언더웨어(Underwear)

맵시 있는 옷차림에는 언더웨어도 무시할 수 없다. 거들을 입은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치마나 바지의 맵시라인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어떤 속옷을 입고 어떤 스타킹을 신었느냐도 옷맵시에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 치마를 입었을 때 판타롱 스타킹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밴드 스타킹도 마찬가지다. 말려 내려오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어진다. 길거리에서 흘러내린 스타킹을 걷어 올리고 있는 여성을 보면 민망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의 정장에는 스타킹을 신지 말고 입어야 한다. 정장을 하고 가는 자리라면 입어서 불편함 쯤이야 감수할만하다.



*** 색을 입는 사람 - 퍼스널 컬러**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어울리고 아름답게 보이는 색상이 있다. 자신의 얼굴 피부색에 어울리는 컬러 타입을 알아 컬러 이미지와 스타일을 분석하는 외적인 면과 자신의 심리와 상황, 건강상태, 라이프스타일과 색채 환경을 구성하여 힐링 컬러를 분석하는 내적인 면 등을 고려한 후 가장 좋은 컬러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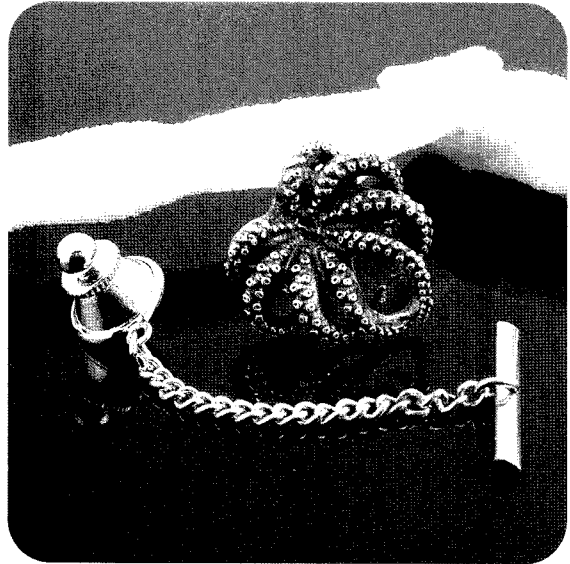
사람들은 예로부터 색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색상에 관한 학문이 생겨난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이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색채를 실사회 속에서 활용하려는 아이디어가 생겨났으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색채심리를 반영한 인테리어에서 색상을 결정하는 방법과 효과적인 배색방법이 널리 보급되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이 되면서 사람을 대상으로 컬러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까지 등장했다. 바로 이것이 퍼스널 컬러의 시초이다.

옷차림에는 컬러가 매우 중요하다. 컬러를 잘 쓰는 사람은 상대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준다. 컬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파장을 갖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컬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장점을 돋보이게 하고 단점을 가려주며, 젊고 당당하고 건강하게 보이도록 해준다. 대체로 어둡고 칙칙한 색상보다는 밝고 화려한 컬러를 선택하는 것이 밝은 이미지 연출에 유익하다. 깨끗하고 밝은 색상의 스카프로 전체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는 것도 센스이다.

*** 액세서리의 원칙**

액세서리는 복장의 조화를 도모하는 장식품으로 '장식물', '노리개', '치릿감'으로 전체에 포인트를 강화시키거나 순화시킨다. 액세서리는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옷차림의 품위를 높여주기도 하고, 전체의 품위와 맵시를 손상시키는 역할도 한다. 유명 메이커의 값비싼 명품을 입고 있는데도 촌스럽게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액세서리의 두가지 원칙을 알면 맵시 있는 복장을 연출할 수 있다. 하나는 작게(small)이고, 또 하나는 적게(few)이다. 크기가 작을수록, 개수가 적을수록 센스 있어 보인다. 액세서리가 너무 크거나 많으면 옷차림의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 패션의 시작 - 구입전략**

복장을 연출하는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입기 전에 목적에 맞도록 사야한다는 것이다. 진열되어 있는 옷이 멋져 보인다고 그때의 기분대로 충동구매를 하면 나중에 정작 입을 때 연출이 어색해진다.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입을 옷인가를 염두에 두어 계획구매를 해야 한다.

여성들의 흔한 투정 중에 하나가 '옷장에 걸려있는 옷은 많은데 정작 입을 만한 옷은 없다' 라는 것이다. 어떤 때 어떤 옷과 매치가 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 놓은 결과이다.

우리가 복장에 신경을 써야하는 진정한 이유는, 옷만 멋지게 입었다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성공할 수는 없지만 옷을 잘못 입어서 실수하는 경우는 흔하기 때문이다. 특히 매 순간마다 고객과 만나야 하는 직장인의 옷차림이 깨끗하고 단정하며 정성스러워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얼굴이 마음의 거울이라면 옷차림은 마음의 빛깔이다.